

나이지리아, 변동환율제로 전환

이보안 연구원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 주요 내용

- 10월 4일 IMF는 나이지리아의 2016년 예상 GDP 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으며, 기타 다른 기관들도 25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현지화 평가절하 압박 가중으로 2차례 환율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
- 그중 주목되는 교육책으로, 6월 20일 CBN은 지난 18개월간 1달러당 197나이라로 고정 유지해오던 환율제를 폐지하였음.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는 나이지리아의 변동환율제 도입은 단기간 환율상승에 따라 상품교역액을 증가시켜 나이지리아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유가 가격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10월 4일 IMF는 나이지리아의 2016년 예상 GDP 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으며, 기타 다른 기관들도 25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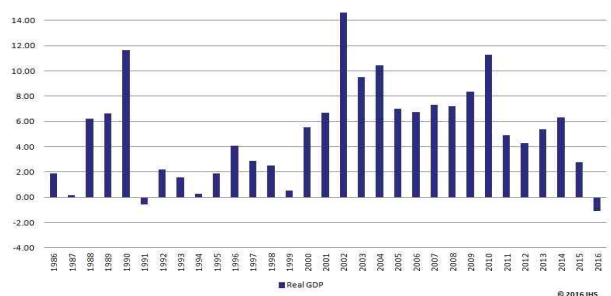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2000년대 초반 고유가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014년 6월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을 계기로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음.
- 지난해 4분기 216만 톤이었던 석유생산량이 올해 2분기에는 169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 454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고는 유가하락, 관리실패, 집권층(공직자)의 횡령 등으로 올해 초 180억 달러로 떨어졌음.
 - 나이지리아 북쪽으로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의 위협이 상존하고, 남쪽으로는 NDA¹⁾ 무장 세력이 Chevron과 Shell 등 원유 시설 10곳 이상을 파괴하고 있어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해오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도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5월 15.6%에서 7월 17.1%까지 상승하였음. 실업률은 2015년도 3분기 9.9%에서 올해 2분기 13.3%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보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현지화 평가절하 압박 가중으로 2차례 환율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함.

표 1. 나이지리아의 주요 경제지표

그림 1. 나이지리아 실질 GDP추이

	단위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	%	5.4	6.3	2.8	-1.1
명목GDP	십억 달러	521.8	576.0	494.9	398.3
재정수지	GDP대비 %	3.4	0.1	-2.7	-2.9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45.4	36.7	28.3	17.9
대외부채	GDP대비 %	21.6	26.8	28.3	30.4
환율	NGN/USD	155.2	167.5	196.5	323.6



주: 2016년은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6.10.06), Nigeria: Country Reports.

주: 2016년은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6.10.06), Nigeria: Country Reports.

1) NDA(Niger Delta Avengers)니제르 델타 어벤져스는 무장단체로, 빈곤철폐, 인프라 개발,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며, 원유 시설 폭파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함. 올해 초부터 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고, 나이지리아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원유의 1일 생산량을 올해 5월 최근 27년 중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게 만들었음. (1일 생산량 210만배럴에서 140만배럴로 급락)

☒ 그중 주목되는 교육책으로, 6월 20일 CBN은 지난 18개월간 1달러당 197나이라로 고정 유지해오던 환율제를 폐지하였음.

-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외환시장에 존재하던 공식환율-시장환율 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환율이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비 석유제품 수출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판매 가능하게 되어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됨.
- 다만 2015년 중반부터 외환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금지한 41개 수입금지 품목(의약품, 비누, 쌀, 시멘트, 마가린, 화장품, 섬유 등)은 그대로 유지됨.

2 전망 및 시사점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는 나이지리아의 변동환율제 도입은 단기간 환율상승에 따라 상품교역액을 증가시켜 나이지리아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유가 가격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CBN은 달러당 283.4 나이라를 첫 번째 공식환율로 정했고, 시장환율은 사상 최고치인 달러당 370나이라를 돌파했음.
- 현지 금융 전문가들은 단기적 환율 급등 현상을 지나면 △점진적으로 나이라화 가치가 상승하고 △공식 및 비공식 환율시장간의 격차가 좁혀져서 공식 환율시장 중심으로 통합되어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기관투자자의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에 증시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그림 2.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중앙은행 공식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나이라
자료: Central Bank of Nigeria

표 2. 나이지리아 최근 석유생산량 추이

연도/분기	생산량 (백만톤)
2015/Q1	2.18
2015/Q2	2.05
2015/Q3	2.17
2015/Q4	2.16
2016/Q1	2.11
2016/Q2	1.69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Nigeria

▶ 다만 올해 하반기에 ‘+’ 성장세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상반기의 ‘-’ 성장분을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여 2016년 GDP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EMERiCs**

출처

Central Bank of Nigeria, NBS, The Guardian, IMF, Bloomberg 등